

조이스문학의 '한 우물 파기' 반평생

30년 걸려 「제임스 조이스 전집」 완역한 金鍾健 교수

‘현대문학의 우산’으로 일컬어지며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무궁무진한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제임스 조이스(1882~1941)의 전 작품이 한 영문학자의 30년에 걸친 노고 끝에 국내 최초로 완역, 출간됐다.

대표작 「율리시스」를 비롯, 「더블린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피네간의 經夜」 「실내악」 「한푼짜리 시」 등을 5권으로 묶고, 따로 이 「율리시스註釋本」을 덧붙인 전6권의 「제임스 조이스 전집」(범우사)이 최근 金鍾健 교수(54·고려대·영문학)에 의해 상재됐다.

한 개인의 작업으로는 세계 최초이기도 한 이 전집의 완역에 반평생을 바친 김교수는 국내학자로는 유일하게 외국에서 조이스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조이스연구에만 외국으로 매달려 온 조이스문학의 열렬한 ‘信者’. “조이스문학을 제대로 알기 위해선 아마도 ‘몇 개의 인생’이 요구될 성싶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러나 그런만큼 이 전집의 완역에 갖는 그의 감회는 남다른 바가 있다.

김교수는 그 감회의 일단을 전집의 머리말에 “그간 분투하고 좌절하고 의혹하고, 자신을 질타하면서 머쓱해 하지 않고, 조이스문학의 최면술적 매력에 회유당하면서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까맣던 머리칼엔 흰눈이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기질적으로 맞아떨어졌던’ 조이스연구

김교수가 조이스문학의 최면술적 매력에 처음 감응한 것은 1960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영국인 조지 레이너교수의 「율리시스」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조이스연구는 별달리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불모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불모지에 조이스연구의 씨를 뿌린 분이 바로 레이너교수였죠. 레이너교수의 강의를 듣고 조이스를 다시 읽으면서, 조이스야말로 일생을 걸어볼 만한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독자로서 느끼는 흥미라기보다는, 뭐랄까 연구자의 욕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20세기 모더니즘문학의 鼻祖요 대부분 조이스문학이 포괄하는 방대함이 연구자로 하여금 한번 덤벼볼적하다는 생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 한편으론, 재능과 순발력보다는 끈기와 집념을 요구하는 조이스연구의 특성이 “기질적으로도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김교수의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스스로도 ‘박사학위를 위한 행복의 사냥터’로 일컬어지는 조이스문학의 한 사냥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이스문학을 학위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한 사냥터로서의 냉정한 텍스트로만 여겨서는 결코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애정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그 문학적 매력에 자신의 몸을 흠뻑 적셔야 하고 빠져들어야 하죠.”

결국, 김교수의 반평생에 걸친 조이스문학 연구와 번역은 그 매력의 정체를 규명하고, 그 애정을 독자들에게 공유하려는 노력인 셈. 이 중에서도 김교수는 후자의 애정을 공유하는 번역작업에 특히 치중해왔다. 조이스문학의 끝간 데 없는 폭과 깊이가 번역이 곧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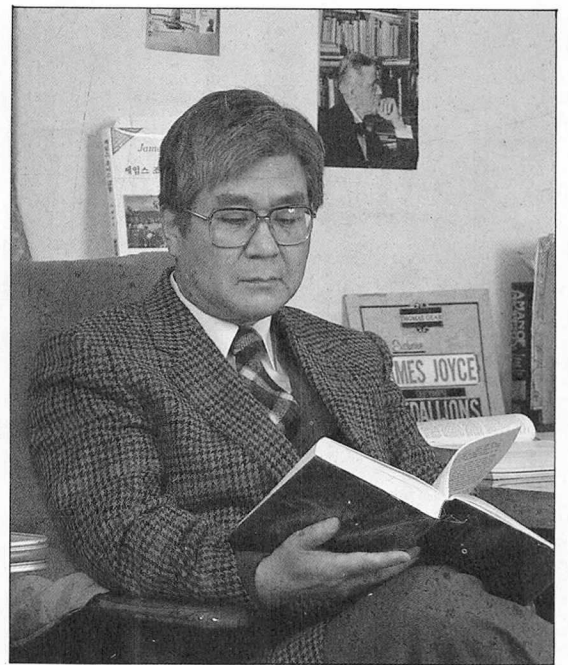
이게끔 강제하기 때문이다. 김교수의 말을 따르자면 “조이스문학은 번역 자체보다는 번역을 위한 텍스트의 이해과정이다 더 길고 어렵다.”

그런 점에서 1977년 그에게 박사학위를 안겨준 조이스연구로 유명한 美탤사대에서의 수학이나, 세차레의 더블린 답사, 그리고 각종 국제조이스학회에의 활발한 참여 등이 모두 이번 전집 완역의 정초를 다지는 학문적 온축이 되고 있다.

‘결정본’ 출간으로 「율리시스」 두번 改譯

실제로 김교수에게 조이스는 번역이 곧 연구요, 연구가 곧 번역이다. 1968년에 初譯한 「율리시스」를 비롯하여 「한푼짜리 시」(1981), 「젊은 예술가의 초상」(1983), 「더블린사람들」(1985), 「피네간의 경야」(1985) 등을 이미 譯刊한 바 있지만, 이번에 전집으로 묶으면서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활용한 개역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특히, 「율리시스」의 경우는 거의 新譯이나 다름없이 전면개역했다.

“조이스연구의 문턱을 막 넘어선 1968년 당시의 「율리시스」 초역본은 제 스스로도 일종의 ‘실험번역’으로 생각하고 그 서문에 ‘10년 후의 개역’을 공약했었죠. 그러고는 1977년부터 개역의 공약을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정음



「조이스전집」을 완역한 김중건교수. “조이스문학의 이해를 위해선 아마도 몇개의 인생이 요구될 성싶다”고 말한다.

사에서 나왔던 「율리시스」 초역본에 빨간 볼펜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작업이 대략 마감된 것이 1982년 초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교수에게 “한가지 엄청난, 그러나 정말 다행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조이스 서지학자로 유명한 독일의 가블러교수가 구판본의 잘못 5천여개를 바로잡은 「율리시스」 결정본을 출간해낸 것이다. 김교수의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두번의 개역을 거쳐 나오게 된 것이 이번 전집의 「율리시스」 및 그 「주석본」이

인간을 읽고 인생을 읽는

잡인출판사 용산구 원효로1가 130-2 712-6403.6404

중국인의 처세명언

모리야히로시 지음/최지명 옮김

불안과 혼미의 시대에 보내는 만고불변의 인간철학!

● 중국의 고전을 인간학의 보고(寶庫)라고 한다. 인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혹은 또 지도자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마땅한가 등등 인간학의 광범위한 테마가 갖가지 각도에서 해명되고 있다. A5판/291면/값3000원

고전·고사에서 발췌한 명언을 통해 강인한 중국의 슬기를 전달하는 현대인 필독의 인생철학서!

다. 「주석본」은 애초에 본문의 脚註로 처리하려던 것이 양이 많아져 별권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블리교수의 결정본 출간에 따른 두번의 개역은 김교수의 조이스번역에 있어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조이스문학의 번역상의 난점은 그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조이스문학을 일러 '인간심리의 백화점'이니 '문체의 박물관'이니 하는 예에서 보듯, 온갖 다양하고 심오한 지식과 상징, 현란하다 못해 얼핏 착종적이기까지 한 문체와 언어의 실험 등이 그 속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조이스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을 두고 "앞으로 수세기 동안 대학교수들은 바쁠 것이다"라고 '예언'했을 정도다.

“조이스문학의 본질은 코메디에 있다”

“우선 부다치게 되는 문제가 언어의 문법이다. 섹스피어를 흔히 언어의 미술사라고 하지만 그가 남긴 37개 작품을 통틀어 사용된 어휘는 2만여 단어인데 비해, 조이스는 「율리시즈」 한 작품에만 3만여 어휘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17개 언어가 혼합된 「피네간의 경야」에는 무려 6만4천여 단어가 동원돼 있죠.”

동원된 어휘의 수도 수지만, 그 각각의 말들이 독특한 울림과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대일로 대응되는 우리말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 이는 우리말 자체의 한계와 김교수가 고백하는 '번역자의 능력의 한계'가 똑같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겠지만, 번역이 원전의 언어를 무미건조하게 범속화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안타까움을 자주 느꼈다

조이스문학의 열렬한 신자로서

조이스에만 반평생을 매달려 온

김교수는 이 전집의 완역을 통해

조이스문학의 충실한

전도사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특유의 난해성으로 일반독자의

접근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던

조이스문학이, 가령 「율리시즈」의 경우

두번씩이나 改譯하는 김교수의

각고 끝에 '읽을 만한' 작품이 되고 있다.

고 한다. 또,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들도, 가령 「율리시즈」의 경우 2천여개나 발견되는데, 이는 전후문맥을 살피고 그 뜻을 '헤어 맞추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다양한 문체실험도 번역자의 각별한 수고를 요하는 조이스문학의 '벽'이다. 앵글로색슨 문체와 엘리자베드시대의 산문문체, 그리고 램, 디킨즈, 스위프트 등 영문학사상 대표적인 작가들의 문체가 그의 작품 속에는 혼호돼 있다. 이같은 조이스의 문체실험에 대응해, 김교수도 가령 「용비어천가」식 문체라든지 이광수, 이상, 김기림 등의 문체를 번역문에 원용하는 실험을 이번 전집을 통해 시도했다는데, 그것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그런 점에서 김교수는 제3의 학자가 자신의 번역본을 텍스트로 삼아 연구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교수는 조이스문학이 무조건 난해하다고만 여기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조이스문학의 본질은 코메디에 있다”는 것이 그의 단언이다.

“흔히 조이스를 난해한 모더니스트로만 생각하지만, 그의 작품은 광범한 서구문화와 당대의 현실에 뿌리를 둔 현대의 고전입니다. 완벽한 이해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절반 이상은 일반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그가 끝까지 밀고나간 과격한 문체개발과 언어실험은 결국 문학을 통해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한번씩은 '읽어볼 만한' 작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올가을부터 더블린대학에서 강의도

조이스를 읽어볼 만한 작가일 수 있게 하는데 자신의 연구를 바쳐온 김교수는, 그러나 자신의 조이스연구에는 아직 아쉬움과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나의 강령은 노동'이라는 누군가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30년간을 오롯이 조이스에게만 매달려 왔지만, 조이스문학의 반이나마 제것으로 소화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만큼 조이스문학의 그릇이 크다는 얘기일텐데, 실제로 조이스문학의 정당한 이해는 조이스 주변의 술한 '보조문학'의 연구를 요구한다는 점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김교수는 말한다. '조이스우물'의 천착을 위해서는 성경, 신화, 섹스피어, 단테, 스위프트 등의 '보조우물'을 동시적으로 파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런 어려움이야말로 연구자들의 도전을 유혹하는 조이스문학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또한 김교수의 말이다. 그 유혹적인 매력에 가까이 몸을 내맡긴 김교수가 전집의 후속작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조이스비평문집」의 간행. 국내의 조이스전문가들의 연구논문들을 단행본으로 묶어볼 생각이다.

또, 세차례의 더블린 답사를 통해 직접 촬영해온 수백 컷의 사진들을 추려 일반인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茶卓本(Coffee Table Book) 작품사진첩을 꾸며 볼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조이스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큰 의욕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가을부터 조이스의 모교인 국립더블린대학의 초청으로 그곳으로 건너가 조이스문학을 강의하게 되는 김교수는, 방학중인 요즘도 고려대 중앙도서관 4층 별 잘드는 그의 연구실에 거의 매일같이 출근한다. 대형 더블린시가 도와 에이레전도가 걸려 있는 이 방에서 그는, 로마에서 산 성서의 커버용 黑皮를 씌운, 그러나 이제는 책장의 네 귀가 너털너털해진 「율리시즈」를 읽고 또 읽는다.

조이스는 김종건교수의 문학적 성서다.

— 강철주 기자

韓國基層文化의 探究 叢書

③ 韓國巫神圖

김태근 편

전국 神堂에 산재되어 있는 巫神圖를 한눈에 通觀할 수 있도록 엮었으며, 무속연구가 金泰坤 교수의 「巫神圖와 巫俗信仰」, 미술평론가 林容淑 교수의 「圖像으로서의 巫神圖와 그 繪畫性」 등 본격 巫俗論은 巫俗神學과 巫神圖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 울컬러판 양장/46배판/216면/값 20,000원

② 장승

황현만 사진/이종철·박태순·이태호·유홍준 글

이 책에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장승이 원색도판으로 총망라되어 '조선 토종'의 표정을 생생히 재현해내고 있으며, 민족사적·정신문화사적·미술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장승론은 한반도 고유의 민족성과 향토성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 울컬러판 양장/46배판/200면/값 20,000원

① 한국 호랑이

김호근·윤열수 엮음

이 책은 호랑이를 그린 뛰어난 그림과 함께, 민속·民畫·說話·속담 등에 나타난 한국 호랑이의 모습을 집대성했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인 '호랑이'의 모든 것, 한국 호랑이의 메시지를 전한다.

• 울컬러판 양장/46배판/216면/값 15,000원